

안약 사용 늘고 용기 형태 비슷 안약으로 오인해 눈에 넣는 사고 늘어나

최근 시력교정 등 안과수술이 보편화되고 미세먼지와 스마트폰 사용으로 안구 건조증 환자가 늘면서 안약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안약과 유사한 형태의 다른 의약품이나 생활화학제품을 안약으로 오인하고 눈에 넣어 결막염, 화상 등 안구손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글_조지영 대리(위해정보국 위해분석팀)



여름철, 무좀약을 안약으로 착각해 눈에 넣는 사고 가장 많아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안약 오인 점안사고는 총 133건*에 이른다. 오인 품목은 '무좀약'이 41.4%(55건)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순간접착제' 17.3%(23건), '전자담배 니코틴액' 14.3%(19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제품은 눈에 들어갈 경우 자극감, 결막충혈이 발생하거나 심한 경우 시력 저하 또는 이차 감염을 유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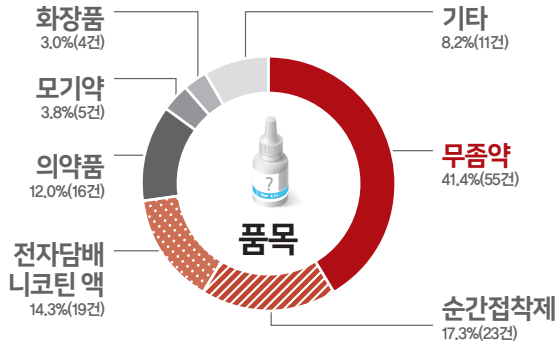
* 연도별 현황 : '15년 45건 → '16년 51건 → '17년 37건

연령별로는 '60대' 26.3%(35건), '50대' 20.3%(27건), '70대 이상' 13.5%(18건) 등의 순으로, 50대 이상 고령층이 전체의 60.1%를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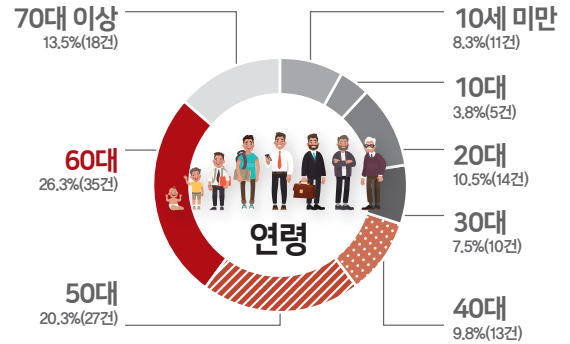
연령대별로 다발 오인품목에 차이를 보였는데, '20대~30대'에서는 전자담배 니코틴액이 가장 많은 반면, '40대 이상'에서는 무좀약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연령대별 해당 제품의 접촉빈도와 관련된 것으로 분석됐다.

발생 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131건을 분석한 결과, 미세먼지가 많고 건조한 3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여름(6~8월)'이 전체의 35.1%(46건)로 가장 많았다.

안약 오인 주요 품목별 현황



연령별 피해 현황



용기 모양이 안약과 유사해 오인 사용할 우려 있어

무증약, 순간접착제, 전자담배 니코틴액 등 주요 오인 품목* 10종의 용기 형상을 확인한 결과, 용기 형태 및 크기, 입구, 개봉방식, 내용물의 색상 등이 안약과 유사했다. 또한, 제품에 표시된 글자 크기가 대체로 작아 시력이 좋지 않은 고령자, 안과수술 환자들이 오인 사용할 우려가 있었다. 액상형 무증약의 경우 주로 플라스틱 재질을 사용하는 안약과 달리 유리병으로 되어 있고 뚜껑에 브러시가 달려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용기 형태 및 크기, 내용물의 색상 등이 안약과 유사했다. 점안 시에는 자극감, 결막충혈, 시야흐림, 이물감 등이 있을 수 있으며, 화상 정도가 심할 경우 시력저하, 이차 감염이 우려된다. 한국소비자원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안약 오인 점안사고 예방을 위해 의약품은 생활화학제품과 분리 보관할 것, 사용 전 반드시 제품명을 확인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 무증약 4종, 순간접착제 3종, 전자담배 니코틴액 3종(총 10종)

점안액 형태의 무증약 비교



또한, 눈에 잘못 넣었을 때는 즉시 물이나 식염수 등으로 씻어낸 후 해당 제품을 가지고 병원을 방문해 눈의 손상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TIP

안약 오인 점안사고 예방수칙

- 안약 점안 전 항상 처방받은 안약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원래의 용기와 종이상자 안에 안약을 보관합니다.
- 의약품 보관함을 만들어 의약품이 아닌 것(예 : 접착제, 전자담배 니코틴액 등)과 섞이지 않도록 합니다.
- 한꺼번에 많은 양의 안약을 처방받지 않도록 하고, 남은 안약을 장기간 보관하지 않도록 합니다.
- 저시력 환자가 안약을 사용할 때는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 점안합니다.

+ 사고 발생시 조치요령

- 눈에 들어간 즉시 물, 식염수 등으로 충분히 세척하고 바로 응급실이나 안과를 방문하여 안과적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특히, 접착제를 점안한 경우 접착제 덩어리를 무리해서 제거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안과 진료 후 제거하도록 합니다.
- 의료진이 잘못 점안한 물질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오인한 제품을 가지고 병원을 방문합니다.

(자문 : 누네안과병원 각막센터 최태훈 원장)